

2010년 상반기 광주 공연 시장의 분위기가 우울하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 광주시향 '부활' 공연 등 5·18 30주년을 맞아 지역에서 제작된 다양한 작품이 화제를 모으기는 했지만 규모가 큰 뮤지컬이나 클래식 외지 공연이 거의 없고, 흥행 작품도 드물다. 6월 역시 화제를 모을 만한 작품이 없어 '공연 가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대형 뮤지컬 '맘마미아'와 '몬테크리스토', 국제공연예술제 등이 포진해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맘마미아'

'공연가뭄' 상반기 서운하셨죠? 하반기엔 기대하세요

광주 뮤지컬 빅무대

7월 '몬테크리스토'·12월 '맘마미아' 관객 걸으로



'몬테크리스토'

◇ '볼 만한 작품이 없어요' = 올 상반기 광주를 찾은 작품들의 숫자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흥행에서는 별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상반기 광주 공연계와 대극장 무대에 올린 뮤지컬은 '시카고', '명성황후', '진짜 진짜 좋아해', '모차르트' 등 4편에 불과했다. 흥행 성적도 썩 좋지 않았다. 관객 동원을 자신했던 '명성황후'와 사이준수가 출연하지 않은 데다 작품도 다소 생소했던 '모차르트'는 관객동원에 애를 먹었다. '진짜 진짜 좋아해' 역시 대박을 쳤던 지난해에 비해 고전했다. 김광석 추모 콘서트는 공연 횟수를 당초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작품 수는 비슷했지만 화제작이 많았다. 4월21~26일까지 장기 공연됐던 뮤지컬 '갯초'에는 모두 1만여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리처드 웅재 오닐 콘서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사라장 콘서트, 조수미 콘서트 등 굵직한 공연이 많았던 터라 올 상반기 공연 애호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컸다.

가장 공연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를 지적 큰 원인으로 들었다. 금요일 이어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기업들의 문화투자자 전무, 다소 비싼 가격대의 티켓을 소화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전반적인 분위기에 눌려 일반 관객들의 지

갑도 받아 버려 전통적으로 수요가 있었던 아동 상대 작품 역시 고전했다. 그밖에 관객들의 관심을 끌 만한 '상품' 자체가 없었던 점이나 천안함 사태 등으로 경직된 분위기도 상반기 불황의 요인이었다.

지역 기획사 관계자는 "기업체를 통해 단체 티켓이 움직이는데 올해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 하반기엔 뭘 볼까 =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2008년에 이어 다시 광주를 찾는 뮤지컬 '맘마미아'다. 아버지의 히트곡을 엮어 만든 뮤지컬 '맘마미아'는 전세계에서 약 4000만명, 국내 약 96만명의 관객을 모은 히트 뮤지컬로 지난 5월부터 9개 도시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댄싱 퀸' '위터루' 등 귀에 익숙한 아버지의 히트곡과 잘 짜여진 곡들이 관객들을 흥분 시키는 '맘마미아'는 중년층까지 뮤지컬 관객으로 끌어들이며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스타 최정원이 도나 역으로 출연하며 전수경·이경미 등 초연 멤버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 특히 남정주가 새롭게 남자 주인공 샘 역으로 출연, 오랜 파트너 최정원과 호흡을 맞춘다. 광주공연은 오는 12월 3~5일로 예정돼 있다.

하반기 공연의 포문을 여는 작품은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다. 오는 7월 16~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몬테크리스토'는 알렉

상드 뒤마의 소설이 원작으로 지난해 스위스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한 에드먼드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핏빛 복수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에는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 눈길을 끈다. 몬테크리스토 역으로는 류정환·엄기준·신성록이 트리플 캐스팅됐으며 여주인공 역으로는 옥주현이 출연한다. 또 '지킬 앤 하이드'의 주옥같은 음악을 만들었던 와일드 혼의 음악 또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또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극 '오빠가 돌아왔다'도 7월 광주 공연을 앞두고 있다. 소설가 김영하의 단편을 원작으로 한 '오빠가 돌아왔다'는 조재현이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연극발전' 시리즈 작품으로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그밖에 창작 뮤지컬의 신화를 쓴 '김종욱 찾기'도 광주 공연을 준비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와 가곡, 산조와 민요의 조화

퓨전국악 작은음악회 내일 광주서구문화원

시와 가곡, 대금 산조·민요 가락이 어우러진 퓨전 국악 작은음악회가 열린다. 5일 오후 5시 광주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5일 오후 5시 광주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5일 오후 5시 광주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광주 터울림 시나위 퓨전국악 작은음악회'를 준비했다. '김종욱' 조철현이 무지개 걸었다'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에는 강백천류 대금산조 준보유자 조철현 씨의 대금 연주와 종국악기 '고쟁' 연주, 퓨전 민요가락한마당 등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공연

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 낭송, 가수 정용주씨의 기타 연주, 합창 등 전통과 현대의 조화, 크로스오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찾아가는 문화재' 공연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의 062-681-417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쿨피아싱어즈 정기연주회

6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제20회 스쿨피아싱어즈(단장 김성국·사진) 정기연주회가 오는 6월 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 여교사와 예비교사로 구성된 스쿨피아싱어

즈는 지난 2000년 창단 후 광주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왔다. 연주 레퍼토리는 성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가곡, '나물캐는 처녀', '모란이 피기까지는',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베르디의 오페라 '시칠리아의 저녁 기도' 중 '오 너 빨래



'르모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는 이명진(소프라노), 최철(베이스), 박지현(피아노), 김동현(장구)씨 등이 찬조 출연한다. 피아노 반주는 정혜진·김연정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 낭송, 가수 정용주씨의 기타 연주, 합창 등 전통과 현대의 조화, 크로스오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찾아가는 문화재' 공연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의 062-681-417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답, 매처럼 날아오르면...

성태훈 개인전 13일까지 서울갤러리

답이 매화꽃 위를 매처럼 날아오르고, 폐허 속을 병아리와 함께 거닌다. 서정적인 풍경을 풍자와 해학으로 경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한국화가 성태훈씨가 '날아라 답'을 주제로 13일 까지 서울 갤러리 팔레 드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성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날아라 답' 연작을 통해 전쟁과 테러 같은 인간상실의 참혹함,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을 철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강제된 불안에 맞서 강건하고 끈끈한 매화로 표현하고, 현대사 회에서 꿈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 의지를 상실해가는 자신을 날고 있는 답으로 풍자함으로써 미래의 꿈과 희망을 향한 강한 비상의 의지를 나타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날아라 답 9'

학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6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현재 흥익대와 성신여대, 전남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문의 02-730-77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폭에 출렁이는 푸른바다

김영주 전-상계갤러리

부산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 김영주씨가 오는 9일까지 광주 상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그의 화폭은 마치 푸른 바닷물이 출렁이는 듯한 청색 풍경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그가 빛어낸 푸른색은 차갑다기 보다는 온기가 느껴진다. 특

히 우직하면서도 투박한 붓터치와 굵은 윤곽선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긴다. '지리산 산수유 마을', '제주도 인상', '문경읍 돌산', '자갈치 아자매' 등 아름다운 풍경과 정겨운 일상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들은 잠시나마 기억 속으로 사라진 고향의 산천을 떠올리게 한다. '2009 대한민국회화제', '2010 현대



'고향바다'

미술 12인의 시각과 전망전' 등에 참가했으며 현재 부산 사생회, 청초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한명진·조춘자씨 차남 옹희군 김창호·조익순씨 장녀 명희양=5일(토) 오후 1시 경복궁 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 ▲양재현(나주시청 사이클감독)·김영미씨 장남 인군 김희경·임영숙씨 장녀 지은(전남대병원)양=5일(토) 오후 1시30분 상무지구 조선컨벤션웨딩 춘추관홀 1층.
- ▲주옥균(전 광주시 건설국장)·이정애씨 차남 성호(코엠커머셜 사장)군 임재익(서울 남향주택(주) 사장)·인재순씨 장녀 최희양=13일(일) 낮 12시50분 광주에블루션 웨딩컨벤션 3층(컨벤션홀)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토)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재정)=6일(일) 오후 6시30분 두암동 남도에예술영양물술풍. 062-266-5566.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 번역 통역원=각종 서류, 무역·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매뉴얼, 특허번역, 논문초록 등 전문번역실 운영. 062-431-4788.
-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등. 062-959-2340.
- ▲이주여성진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

모집

- ▲오치중합사회복지관 모집=결혼이주여성 초보염모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 ▲광주시 복귀지원봉사센터 문화자원봉사 큐레이터 모집=5일(토) 까지 10명 모집, 공원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문화 자원봉사 활동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은 11월까지. 062-269-1365.
-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시군지회장 모집=전남 시·군 전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에 관심있는 참신하고의욕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061-272-2207.
- ▲한국은퇴자협회 사회봉사 회원 모집=현직에서 은퇴 및 퇴직하신 분으로 중·장년의 인권과 권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헌신할 수 있는 의의 및 전남북지역의 지도자로서 분 환영. 062-223-1357, 010-9773-2456
- ▲충민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 이용자모집=혼자선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 ▲광주시 동구 전문봉사단 육성교육생 모집=4일(금)까지 모집, 'POP에쁜글씨·풍선아트' 각 분야 15명씩, 전반기 기술 습득 후 봉사활동 가능한 시민 선착순 모집. 062-228-1365.
-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 모집=화장품 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시군지회장 모집=전남 시·군 전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에 관심있는 참신하고의욕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061-272-2207.
- ▲한국은퇴자협회 사회봉사 회원 모집=현직에서 은퇴 및 퇴직하신 분으로 중·장년의 인권과 권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헌신할 수 있는 의의 및 전남북지역의 지도자로서 분 환영. 062-223-1357, 010-9773-2456
- ▲충민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 방문목욕·복지용품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 ▲풋볼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최원 선발=발로 볼을 차 흠에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풋볼프장. 010-4604-4608.
- ▲진월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혜택·고용보험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 ▲늘이매 '시명' 단원 모집=연극·탈춤·종춤·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 ▲광주 아버지합창단원 모집=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총 회원 모집=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

- 으로 영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텝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 ▲이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지원봉사자 모집=월 3~4회 노인 돌봄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무료)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건·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까지 및 환급금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100원회 회원 모집=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십시오. 011-666-0660.
-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보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

- 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외경 지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부음

- ▲송진택씨 별세 중도·소회·소연·소운식 부친상=발인 5일(토) 화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 ▲문길순씨 별세 이일모·경모·민수·일순씨 모친상=발인 5일(토) 화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 ▲정몽순씨 별세 박희선·하철·하순·양숙·금자씨 모친상=발인 4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김재흥님(남/77세)
 子/부 김성용 / 비정희, 김근성 / 양명년
 김연년, 김순남 / 이장주
 玄/부 김순희 / 비태희, 김영희 / 규국범

호실 0610호
 발인 06월 04일
 장지 화순 동곡 선천

故 정영택님(남/77세)
 子/부 정영선 / 비연심, 정현국 / 장수재
 孫 정현민 / 최명희
 정민수 / 관상곡

호실 0610호
 발인 06월 04일
 장지 화순 동곡 선천

삼기교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추차장 - 정갈한 음식!